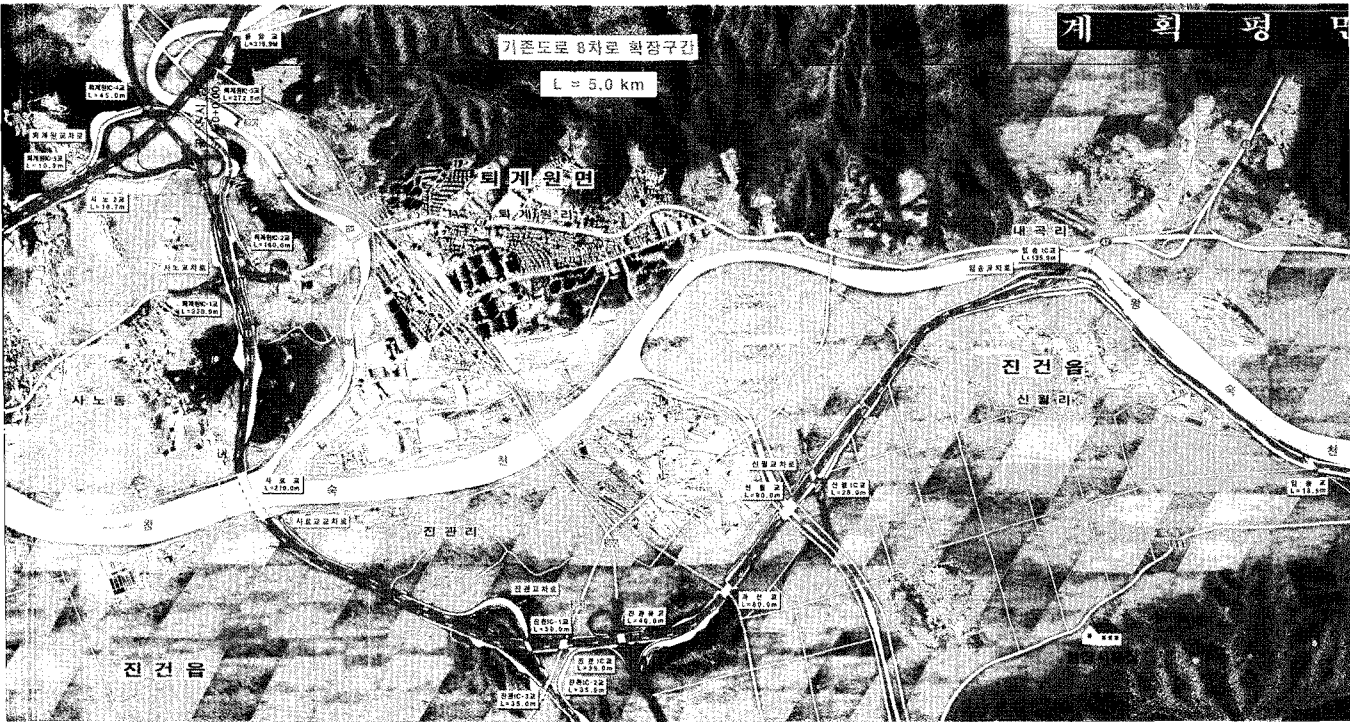


쌍용건설이 최고품질의 진면목을 펼치고 있는



# 국도47호선 퇴계원~진접간 도로건설공사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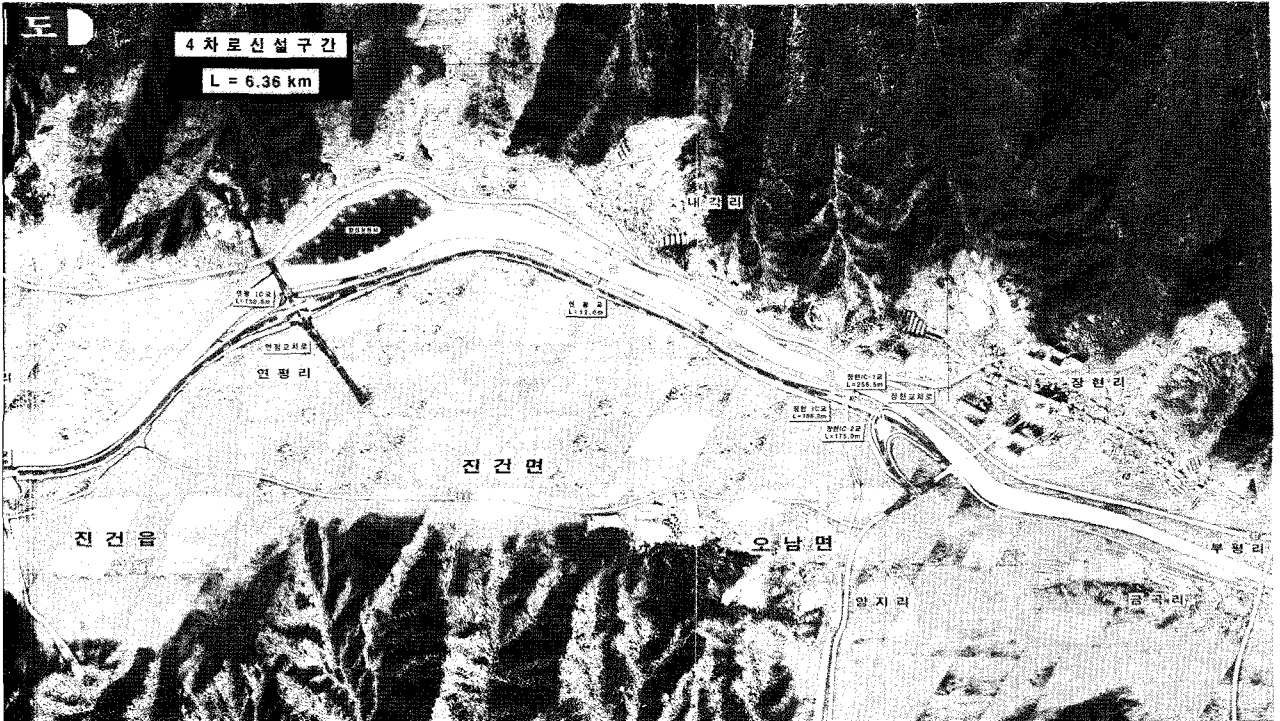
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의 원활한 연계처리를 위해 기존 4차로를 8차로로 확장 및 신설하는 도로건설 공사로서 2005년 말 조달청(수요처: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발주를 통해 국내 최고품질의 기술을 자랑하는 쌍용건설(주)이 낙찰사로 선정되어 시공 중인 현장이다.

총예산 3,245억원(시설비 1,659억원, 보상비 1,586억원) 규모인 이곳 공사구간은 도로연장 총 L=11.36km로서 퇴계원IC~임송IC까지 기존의 4차선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

는 공사와 임송IC~장현IC까지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 즉, 확장 및 신설되는데 따른 교량개수만 무려 25개소에 달하는 동시에 유출입시설도 8개소에 달해 난공사구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국도47호 구간이 차량 유동량이 많은 상시 지·정체구간인 관계로 복잡한 교통상황을 감안해야만 하는 공사구간이어서 매우 어려운 공사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경보 회장이 이곳을 방문한 지난 3월, 양철규 쌍용건설 현장소장은 공사현황 브리핑을 통해 2010년 3월 현재 약

쌍용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는 수도권 남북간선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도47호선 구간중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구간으로, 이 공사구간은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해 인적·물적자원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안정한 도로상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의 위험을 제거함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미래 통일국가에 대비한 도로망 확충 공사이다.



2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착공 초기에는 보상지가 상승으로 인한 용지보상 지연 및 문화재 발굴로 인해 공사가 상당부분 지연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조기개통 염원과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2009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양철규 소장은 이구간 공사의 중요성에 대해 2009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약 2만5천여 가구의 입주가 예상되는 남양주시 진접지구를 비롯해 호평지구, 평내지구, 마석지구, 가운데지구 등 남양주시내 택지개발을 통해 증가되는 인구와 교통량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설명하고 수도권 남북간선의 주축도로로서의 역할과 비중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안전은 모든 작업의 시작이며 끝이다”라는 방침 아래 시공뿐 만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양철규 현장소장을 비롯한 쌍용인들은 공사현장 인접주민과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환경개선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시공함으로써, 안전과 환경분야 최고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다.



• 관리감독자들에게 현장내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양철규 현장소장.



• 쌍용건설 퇴계원~진접간 도로건설공사 양철규 현장소장

## 국도47호선 퇴계원~진접간 도로건설공사 쌍용건설 공사현장의 주요 안전활동

### 1. 안전 및 환경패트롤

- 안전패트롤 - 차량2대와 4인의 패트롤 팀이 매일 일과시간 중 현장을 순찰해 불안전시설 점검 및 보완, 불안정한 행동 근로자 지도, 현장내 정리정돈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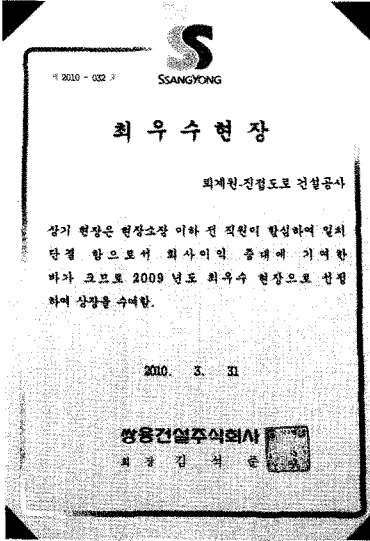
- 환경패트롤 - 차량1대, 인원2명, 고압살수기 1set로 구성된 패트롤팀이 매일 일과 시간중 현장 안전순찰을 실시. 환경 위반사항 발견 및 시정조치, 비산먼지 발생시 살수 및 구내서향 지시, 아스팔트 도로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도로 세척, 폐기물 불법매립 감시 및 폐기물 임시야적 관리.



• 퇴계원~진접간 도로건설공사의 완벽시공을 위해 힘찬 결의를 다지고 있는 쌍용인들.

## 쌍용건설 퇴계원 - 진접 도로건설공사





• 쌍용건설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



• 한경보 회장에게 현장브리핑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양철규 현장소장(건설안전 기술사).

## 2. 안전스티커 도입 및 근로자 현장퇴출제 시행

- 안전스티커 -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전원이 근로자 및 협력업체에 스티커를 발부해 근로자에게는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협력업체 관리감독자에게는 현장에서의 안전시설 미조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조치사항을 확인 점검하는 제도

안전수칙 위반 스티커	
지정사항	
지정일시	2010년 1월 1일
시정일수	
지정내용	
<input type="checkbox"/> 복판의 안전수칙 적용 : <input type="checkbox"/> 경명 : (서명) <input type="checkbox"/> 위험한 모든 사항 적용 : <input type="checkbox"/> 경명 : (서명)	
안전은 모든 작업의 시작이며 끝이다. 쌍용건설(주)   황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현장	

- 현장 퇴출제 : one out과 two out으로 구분시행-음주자 및 작업지시 불이행, 안전장치 미부착 장비 운전자 등은 즉시 퇴출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자, 근로자 정기교육 불참자, 미승인 전동공사사용자, 중량물 인양안전수칙 미준수, 아웃트리거 완전긴장 및 하부받침목 미설치, 후방카메라 미부착 장비 운전자는 2회 적발시 퇴출



## 3. 계단단부 개구부 추락방지시설 개선

기존의 경우 통로단부에 아무런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없이 방치된 개구부로 인해 추락의 위험이 산재되어 있었음. → 개구부에 안전로프를 수직으로 2줄설치하고 수평으로도 설치하고 난간대 기능도 하도록 개선

